

## 버럭 임금과 비밀 상자

- \* 글 : 공수경
- \* 그림 : 노은주
- \* 펴낸곳 : 단비어린이
- \* 분량 : 80쪽
- \* 대상 : 초등 저학년

### · 책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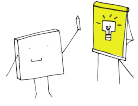
안테르센의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기가 두려워 보이지 않는 옷을 보인다고 거짓말을 한 임금과 신하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죠. 어린이를 위한 동화지만, 이 책이 주는 교훈은 결코 가볍지 않아요. 어른들이 읽어도 속이 뜨끔할 만한 내용이라 할 수 있지요.

『버럭 임금과 비밀 상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임금과 신하들이 자신의 부족함이 탄로 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기고 진실을 말하게 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바로 예리의 지혜로움과 신기한 ‘비밀 상자’를 통해서 말이죠.

나보다 강한 사람, 혹은 권력 앞에서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길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책이 던지는 질문에 여러분도 함께 생각해 봐요!

### · 주요 독후활동

<b>버럭 임금과 비밀 상자</b>	책 속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야기의 중심 사건</li> <li>· 범인은 누구일까?</li> <li>· 등장인물의 성격</li> <li>· 상자의 비밀</li> </ul>
	토론&논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짜 재봉사들은 옳은 일을 한 것일까?</li> </ul>
	창의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잘못을 인정하는 방법</li> <li>· 이야기의 다음은 어떻게 되었을까?</li> </ul>



# 독서 전

국어 교과\_독서 단원 연계 책 미리 보기 : 표지

-책의 앞뒤 표지의 제목, 글귀, 그림을 살펴봅시다.

1. 『버럭 임금과 비밀 상자』의 책표지를 보고 드는 생각과 느낌, 궁금한 점 등을 써 보세요.


2. 『버럭 임금과 비밀 상자』 뒤표지에 쓰여 있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버럭쟁이 임금님도 겁쟁이 신하들도  
모두 진실을 말하게 이끌어낸 ‘비밀 상자’ 이야기**

안데르센의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기가 두려워 보이지 않는 옷을 보인다고 거짓말을 한 임금과 신하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죠. 어린이를 위한 동화지만, 이 책이 주는 교훈은 결코 가볍지 않아요. 어른들이 읽어도 속이 뜨끔할 만한 내용이라 할 수 있지요.

『버럭 임금과 비밀 상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임금과 신하들이 자신의 부족함이 탄로 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기고 진실을 말하게 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바로 예리의 지혜로움과 신기한 ‘비밀 상자’를 통해서 말이죠.

나보다 강한 사람, 혹은 권력 앞에서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길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책이 던지는 질문에 여러분도 함께 생각해 봐요!

1) 『버럭 임금과 비밀 상자』는 \_\_\_\_\_가 쓴 동화\_\_\_\_\_ 와(과)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밑줄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

2) 『버럭 임금과 비밀 상자』에 나오는 임금과 신하들은 왜 보이지 않는 옷을 보인다고 했나요?

⇒

3) 여러분도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 말하지 못했던 적이 있나요? 자신의 경험을 적어 보세요.

⇒



국어 교과\_독서 단원 연계

궁금한 점을 떠올리며 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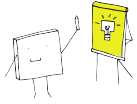
- 책을 읽으며 떠오르는 궁금한 점은 붙임쪽지에 써서 붙여 보세요. 그리고 책을 다 읽은 다음 자신이 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면 글의 내용을 더 깊이 있게 읽을 수 있어요.

1. 『버럭 임금과 비밀 상자』를 읽으면서 떠오른 질문을 써 보세요.

감옥에 갇힌 대신들	
금화	
손짓 대화	
가짜 재봉사	
대신들도 모두	
엇갈린 대답	
상자의 비밀	

2. 위에 쓴 질문을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보세요.

책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	책에서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



## 독서 후 책 속으로\_ ① 이야기의 중심 사건

1. 『버럭 임금과 비밀 상자』는 『벌거벗은 임금님』과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등장인물을 넣어 『벌거벗은 임금님』의 줄거리를 이어서 적어 보세요.

<등장인물>  
임금님, 신하들, 예리의 동생, 가짜 재봉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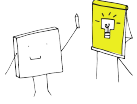
옛날 어느 나라에 욕심 많은 임금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재봉사 둘이 임금을 찾아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옷을 만들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옷은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특별한 것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임금은 기뻐하며 두 사람에게 옷을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드디어 두 사람이 완성된 옷을 가지고 왔습니다.

2. 이 책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정리해 봅시다. ㉑~㉔를 읽고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기호를 나열하세요.

- ㉑ 꾸미가 재봉실에서 바늘을 찾았다.
- ㉒ 예리와 꾸미는 가짜 재봉사들과 함께 궁궐로 갔다.
- ㉓ 예리는 임금님과 신하들에게 비밀 상자를 보여줬다.
- ㉔ 임금님이 대신들을 감옥에 가뒀다.
- ㉕ 임금님이 사과문을 백성들에게 발표했다.

3. 예리와 꾸미는 찾은 단서로 추리를 합니다. 아래 단서에서 어떤 점을 알아냈는지 정리해 보세요.

단서		알아낸 것
전문가가 쓰는 바늘	⇒	
금화를 보육원에 모두 두었다.	⇒	



## 독서 후 책 속으로\_ ② 범인은 누구일까?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어제 말씀하실 때 그 가짜 재봉사들이 손짓 눈짓으로 이야기하는 걸 보았다고 하셨죠?”  
대신들 대부분이 그렇다고 말했지. 예리가 다시 물었어.  
“그때 어떤 손짓을 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대신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어. 잠시 뒤, 주방 대신이 생각이 난 듯 손뼉을 쳤어.  
“집게손가락을 코끝에서 입 옆으로 비스듬히 갖다 대는 걸 봤어.”  
뒤이어 청소 대신이 말했어.  
“아, 그리고 보니 나도 생각나네. 난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워 보이는 걸 봤어.”  
옆에 있던 음악 대신도 말했어.  
“난 가끔 손가락을 살짝 구부려서 흔드는 걸 봤어. 항상 세 손가락만 구부려 흔들기에 왜 그러나 생각했었던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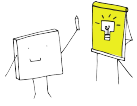
(나) “수어? 그게 뭐야?”  
“”  
“뭐야? 그럼 네 말은 재봉사들이 말을 못 하거나 소리를 못 듣는 사람들이란 거야?”  
“아니, 둘 중 한 사람은 말을 할 줄 알았을 거야. 대신들이 재봉사와 얘기를 했다고 하니 말이야. 가짜 재봉사들이 자기들끼리 손짓 눈짓을 한 건 대신들을 속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 명이 진짜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일 거야. 그래서 대신 아저씨들이 보았다는, 그들이 자주 사용한 손짓에서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예리는 얘기하며 책을 계속 넘겼어.  
“아! 여기 있다. 검지를 입가에 갖다 대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운 건 ‘아버지’라는 말이었어.”  
옆에서 책을 찾던 꾸미도 뭔가를 찾았지.  
“여기 봐! 손가락 세 개를 구부려 흔든 건 숫자 삼십을 뜻하는 거야.”

1. (가)에서 예리와 꾸미가 알아낸 것을 (나)에서 찾아 써 보세요.

재봉사들이 손짓 눈짓으로 대화를 했다.	
검지를 입가에 갖다 대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움.	
손가락을 세 개 구부려 흔듦.	

2. (나)의 네모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 독서 후 책 속으로\_ ③ 등장인물의 성격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이 망토는 임금이 되는 순간 물려받아 보관하며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에만 착용했어. 그리고 그 다음 임금에게 물려주게 되어 있었지. 그런데 그게 왜 예리가 들고 있는 상자 속에 있냐고? ㉠그건 바로 새 옷만 좋아하는 이 임금 때문이었어. 어느 날 임금은 한 번 입은 옷들을 전부 버리라며 청소 대신에게 던져 줬는데, 그 옷들 사이에 이 망토가 끼어 있었던 거야. 당연히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지. 그러다 중요한 행사가 있던 날 망토를 입으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망토를 잃어버린 사실을 알고 임금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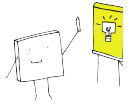
(나) 대신들이나 백성들이 알면 임금은 자리에서 쫓겨날지도 모를 일이었거든. ㉡임금은 망토를 잃어버린 책임을 면하려고 재봉 대신을 불러 다그쳤어. “네가 예전에 내 망토의 한쪽 끝이 낡아 수선이 필요하다고 하여 가져가지 않았느냐? 분명 네가 보관을 소홀히 하여 잃어버린 것이렸다.” 재봉 대신이 아니라고 해도 소용없었지. 임금은 오히려 버럭버럭 더 큰소리를 쳤어. “이 모든 게 관리를 소홀히 한 너의 책임이니 당장 망토를 찾아오든지 쥐도 새도 모를 만큼 똑같은 걸 만들어 오든지 하라.”

1. 윗글에서 임금의 행동인 ㉠, ㉡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각각 적어봅시다. (임금의 행동이 리더로서 왜 문제가 되는지를 넣어서 적어 주세요.)

㉠	㉡
---	---

2. 내가 생각하는 바른 리더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꼭 필요한 덕목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꼭 필요한 덕목	그렇게 생각한 이유



## 독서 후 책 속으로\_ ④ 상자의 비밀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자 그럼 모두 보셨으니 이제 임금님께서 먼저 상자 안에 무언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부터 말씀해 주세요. 만약 무엇이 있었더라도 그게 무엇인지는 말씀하시면 안 되며, 아무 것도 없었다면 아무 것도 없었다고만 하시면 됩니다.”

임금과 대신들은 모두 의아했어. 무엇이 들어 있는지 말하는 것도 아니고, 있다 없다면 말하라니. 그걸로 도대체 어떻게 정직한 사람을 구별해 내겠다는 건지 애들 장난에 놀아나고 있는 것 같아 조금 언짢기까지 했지. 예리가 다시 재촉하자 임금은 어쩔 수 없이 헛기침을 한 번 한 뒤에 말했어.

“음. 이 상자 안에는 무언가가 들어 있다.” 임금은 헛기침을 한 번 한 뒤에 말했어. (중략)

“뭣들 하느냐? 상자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말하는 게 뭐가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다들 엉덩이를 빼는 것이냐?” 임금의 호통에 마지못해 가장 앞줄에 있던 음악 대신이 대답했어.

“사, 상자 안에는 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임금의 눈초리가 올라갔어. “그럼 내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냐?”

이번에는 놀이 대신이 나와 대답했어.

“저, 저는 폐하와 마찬가지로 무언가 들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사, 상자 안에는 분명 무언가 들어 있었습니다.”

(나) “사실 이 상자에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모두 고개를 갸우뚱했어. 예리가 상자 뚜껑을 열어 모두에게 보여 주었어. 상자 안은 텅 비어 있었지. 예리는 상자 뚜껑을 닫았어. 그 다음 상자를 뒤집어 다시 뚜껑을 열었지. 그러자 이번에는 임금이 보았던 그 황금 망토가 들어 있었어. (중략)

“폐하, 사실 대신들이 본 상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폐하께서는 상자 안에 망토가 들어 있는 쪽을 보여드렸지요.”

1. (가)의 밑줄에서 임금이 본 ‘무언가’의 정체는 무엇인가요?

⇒

2. 예리가 가져온 상자의 비밀은 무엇인가요? 그 비밀을 이용해 무엇을 보여주려고 한 걸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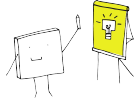
⇒

3. 위의 글에서 정직하게 말한 신하와 거짓말을 한 신하는 각각 누구인가요?

⇒

4. 내가 신하라면 상자를 보고 뭐라고 말할까요? 그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 독서 후 토론&논술\_ 가짜 재봉사들은 옳은 일을 한 것일까?

※ 가짜 재봉사들은 임금님의 잘못을 알려주기 위해 가짜로 옷을 만들었고, 임금님에게 망신을 주었습니다. 대신들의 잘못 또한 지적합니다. 이런 재봉사들의 행동과 말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다음 임금님과 가짜 재봉사의 대화를 참고하여 ‘재봉사들이 한 일’에 대해 토론하고, 입장을 정해 자신의 생각을 써 보세요.

“폐하, 자, 잠시만요. 물론 저희의 죄가 큼니다만, 저희만 잘못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뵈이, 그럼 또 누가 잘못이 있단 말이나? 어디서 누굴 또 속이려고 수를 쓰는 것이냐?”

큰아들은 주위에 둘러 서 있는 대신들을 가리키며 소리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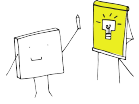
“여기 있는 대신들도 모두 잘못이 있잖습니까? 물론 저희가 있지도 않은 옷을 있다고 속인 건 잘못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옷을 보인다고 거짓말을 한 대신들도 모두 떳떳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대신들 중 누구 한 명이라도 옷이 없다고 끝까지 주장해서 폐하를 설득했다면 폐하도 저희를 의심하셨을 겁니다. 그럼 별거숭이 행차도 하지 않았을 거고요. 그러니 저희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대신들도 모두 폐하를 속인 죄로 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 가짜 재봉사들은 옳은 일을 한 것일까?

<찬성 측 중심 생각> 가짜 재봉사가 임금과 대신들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었다.

<반대 측 중심 생각> 잘못을 깨닫게 하는 방식이 잘못되었다.





## 독서 후 창의융합\_ ① 잘못을 인정하는 방법

※ 『버럭 임금과 비밀 상자』의 마지막에 임금과 대신들은 백성들에게 사과문을 발표합니다. 여러분이 임금과 대신들이 되어 사과문을 적어 보세요. 그 사과문을 읽고,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도 상상해서 써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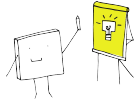
<사과문>

-임금-

<사과문>

-대신들-

-백성들-



## 독서 후 창의융합\_ ② 이야기의 다음은 어떻게 되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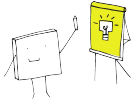
※ 『버럭 임금과 비밀 상자』는 안데르센의 동화 『별거벗은 임금님』의 뒷이야기를 상상해서 쓴 책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동화의 뒷이야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작가의 다른 동화를 읽고, 뒷이야기를 상상해서 써 보세요.

### 『미운 오리 새끼』 줄거리

유난히 큰 알에서 태어난 새끼 오리는 보통의 오리들과 다르게 생겼다는 이유로 주변 오리들에게 괴롭힘을 당한다. 상처를 받은 새끼 오리는 집을 떠나고, 어느 마음씨 좋은 할머니의 집에서 지내게 된다. 하지만 그곳에 있던 고양이와 닭의 괴롭힘에 못 이겨 새끼 오리는 결국 또 도망쳐 나온다. 춥고 외로웠던 겨울이 지나 봄이 오고, 어느 날 우연히 새끼 오리는 자신이 하늘을 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못생긴 오리인줄만 알았던 새끼 오리는 알고 보니 아름다운 백조였다. 이후, 미운 오리새끼는 백조 무리 속으로 들어가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며 행복하게 산다.

그러던 어느 날,

Blank writing area with horizontal dashed lines for text entry.



## 정답과 해설(예시 답안)

2쪽	<p>(예시답안) 1. 1) 임금님이 옷과 신발을 거부하고 있는 것 같다. 2) 임금님이 화를 많이 내서 ‘버럭 임금’이라고 부르는 것 같다. 3) 비밀 상자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 2. 1) 안데르센, 별거벗은 임금님 2) 자신의 부족함이 탄로 날까 봐 두려워서, 임금님이 무서워서. 3) 예시 답안) 엄마에게 혼날까 봐 준비물 잃어버린 것을 말하지 못했다.</p>
3쪽	<p>1. 예시 답안) 1. 누가 감옥에 갇힌 대신들을 구해 줄까? 2. 금화를 구리로 바꾸면 얼마나 많을까? 3. 바늘에 썬 기호는 무엇을 뜻하는 걸까? 4. 재봉 대신이 예리에게 준 꾸러미에는 무엇이 들었을까? 5. 예리가 가지고 온 상자 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 6. 상자에 아무것도 없다고 한 신하들은 정말 망토를 보지 못한 걸까? 7. 예리와 꾸미는 계속 친하게 지냈을까? 2. 예시 답안) 1, 4, 5, 6 / 2, 3, 7</p>
4쪽	<p>1. 예시 답안) (임금님과 신하들 눈에 옷은 보이지 않았지만 어리석은 게 들킬까 봐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임금님은 벗은 몸으로 행차를 했습니다. 그때 예리의 동생이 임금님을 향해 “별거벗은 임금님이다! 하고 외쳤고, 그제야 임금님과 신하들은 재봉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았습니다.) 2. ㉠-㉡-㉢-㉣-㉤ 3. 1) 그들 주변에 전문 재봉가가 있을 것이다. 2) 재봉사들의 목적은 돈이 아니었다.</p>
5쪽	<p>1. 1) 둘 중 한사람은 말을 못 하거나 소리를 듣지 못한다. 2) ‘아버지’를 나타내는 수어. 3) ‘삼십’을 뜻하는 수어. 2. 예시 답안) 말을 못하거나 귀가 안 들리는 사람들이 쓰는 대화 언어야. 손으로 하는 말 같은 거지.</p>
6쪽	<p>1. ㉠ 예시 답안) 임금이 새 옷만 좋아하면 매일 옷이 쓰레기가 되어 버려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또 임금이 사치하는 모습만 보이게 되면 백성들은 임금을 믿고 따를 수 없게 된다. 임금은 매일 옷에 신경을 쓸 시간에 백성들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 ㉡ 임금은 스스로 잘못된 것을 인정해야 한다. 다른 대신들에게 잘못을 떠넘기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리고 대신들과 이야기할 때 다그치거나 소리를 지르면 대신들은 겁을 먹고 진실을 이야기할 수 없다. 2. 예시 답안) 정직-리더가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을 속이면 백성들이 임금을 믿을 수 없다.</p>
7쪽	<p>1. 황금 망토 2. 상자를 바로해서 열면 상자 안에 든 황금 망토가 보이고, 상자를 뒤집어서 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예리는 어떤 대신이 정직하게 말하는지를 보여주려고 했다. 3. 음악 대신은 정직하게 말했고, 놀이 대신은 거짓말을 했다. 4. (예시 답안) 아무것도 없다고 정직하게 말했을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인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고, 금방 밝혀질 것 같기 때문이다.</p>
8쪽	<p>찬성 근거 : 가짜 재봉사들의 말처럼 임금과 대신을 속이려고 했어도 임금과 대신들이 정직했다면 속아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또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임금과 대신들은 잘못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었으므로 가짜 재봉사들은 옳은 일을 한 것이다. 반대 근거 : 가짜 재봉사들 때문에 임금은 망신을 당했고, 죄 없는 대신들이 감옥에 갇히기도 했다.</p>

	<p>임금은 한 나라의 얼굴인데 벌거벗은 채로 행진하는 모습을 이웃나라에서 본다면 나라의 이미지에도 좋지 않을 것이다. 임금을 깨닫게 하려면 임금에게 옳은 이야기를 할 백성들을 모아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었을 것이다.</p>
9쪽	<p>(예시답안) 1. 1) 예시 답안) 오늘 나는 모든 백성들에게 사과를 하려고 한다.  먼저 얼마 전, 내가 벌거벗고 행진을 한 것은 나의 어리석음을 들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지금까지 솔직하게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대신들의 말을 듣지 않았고, 내 마음대로 나라를 움직이려 했다. 앞으로는 정직하게 말하는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임금이 되도록 하겠다.</p> <p>2) 예시 답안) 백성 여러분,  우리 대신들은 임금님께 가장 정직하고 바르게 백성들의 뜻을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임금님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 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사과합니다. 앞으로는 백성들의 말을 바르게 전하는 대신들이 되겠습니다.</p> <p>3) 예시 답안) 임금님과 대신들이 사과를 하다니! 처음 있는 일이야! 앞으로 우리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니! 우리도 잘못된 점들이 없는지 살피고, 대신들에게 알려줘야겠어.  가이드) 사과문에는 자신의 잘못과 앞으로의 결심이 드러나게 적도록 지도해 주세요.</p>
10쪽	<p>1. 정답 생략) (가이드) 함께 책을 읽은 친구들과 뒷이야기를 한 문장씩 지어보면 더욱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p>